

조선시대 상류주택 사랑대청의 실내입면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all Components of Sarang-taechong in the Upper Class houses of Chosun Dynasty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교수 吳惠京
박사과정 洪利京

Dept. of children, family and housing studies, Kyunghee University,

Prof. : Oh, Hye-kyung

Doctor course : Hong, Yi-kyu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의 결과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wall components of Sarang-taechong in the upper class houses of Chosun dynasty. Physical trace method was used for this study. The samples were taken from the Sarang-taechong of 6 traditional Korean houses; Yunkyungdang, the ancient Chusa estate, Sunkyojang, Chunghyodang, Yangjindang, Unjoru. The major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ommon components of each wall were pillars, sanginbangs(upper horizontal beams), hainbangs (lower horizontal beams), door and windows. Changbangs(wood eave pieces that supported decoration blocks), changyos(a piece of wood fitted between the tops of pillars and upper tori cross beams), and morums(the top wainscot board laid horizontally between the bottom beam and the bottom portion of a window frame) were additional. 2) The composition of every south wall was symmetrical and the other threes were mixed symmetrical and asymmetrical. 3) The image of wall was classified- fine, strong, and moderate, according to the symmetry or asymmetry of wall composition, the width of each components, the kind of window.

* 본 연구는 1998학년도 화성건설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전통은 한 집단에서 역사가 있으면 존재할 수 있는 현재까지 축적되어진 문화양식으로서, 현대에도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지배적인 관행규범으로 작용하는 힘을 가진다. 즉, 현대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과거에서 내려오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에 이어지며 채택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과거를 이해함과 동시에 현재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중요성을 가진다.

한국에서 전통의 문제는 조선후기 근대화 과정과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기간 동안 과거와 현재의 연결과정인 '근대'를 생략시킴으로서 전통의 단절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광복후에도 전통의 내면적 본질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전통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70년대에 이르러 세계 건축사적 흐름과 함께 내면적 요소인 민족의식의 성숙에 의해 전통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전통문화의 계승으로서 전통주택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건축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로 주로 주택의 공간구성이나 구조상의 특성 등을 다룬 것들이 많았고 실내공간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미약하였다. 더욱이 대표적 서양문화의 보급에서부터 출발한 아파트에서도 난방방식인 온돌은 초기에는 온돌자체를 시공하지 않다가 점점 되살아나 현재에는 거의 모든 바닥에 온돌을 시공하고 있으며 창호들을 비롯한 여러 요소들이 아직도 면면히 계승(오혜경, 1992)되고 있어 전통주택 실내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주택의 실내구성요소 중 입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건물 외관의 입면구성의 비례체계(문종만 외1인, 1988)나, 개구부 비례 특성(장숙화,

김일진, 1992) 등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실내의 각 입면을 이루는 구성요소와 이들 요소들의 특성, 이들이 실내 공간에 미치는 이미지 등을 실측에 의해 면밀히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전통주택의 실내입면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는 필요하며, 입면구성요소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차적으로는 우선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전통문화의 유산을 보존하고 기록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실내공간을 표현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상류주택 사랑대청의 실내입면구성 요소와 그 특성(규모, 비례, 형태)을 분석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주택 사랑대청의 규모와 위치는 어떠한가?

둘째, 연구대상주택 사랑대청 실내의 전면의 구성요소와 그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연구대상주택 사랑대청 실내의 후면의 구성요소와 그 특성은 어떠한가?

넷째, 연구대상주택 사랑대청 실내의 좌측입면의 구성요소와 그 특성은 어떠한가?

다섯째, 연구대상주택 사랑대청 실내의 우측입면의 구성요소와 그 특성은 어떠한가?

II.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대표적 전통주거건축으로서 조선시대에 건축되어 현존하는 상류주택중 역사적

1) 대상주택의 건립연대를 살펴보면, 17~19C 에 걸친 조선시대 중기~후기의 주택으로 충효당, 양진당이 1600년대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가장 먼저 건립되었고, 연경당이 가장 늦은 1828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존의 가치가 높고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여섯 주택의 사랑대청이다. 이들 주택은 서울의 창덕궁내연경당, 충청도 예산의 추사고택, 강원도 강릉의 선교장, 경상도 안동의 충효당과 양진당, 전라도 구례의 운조루로서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는 현존하는 상류주택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을 뿐 아니라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두 주택을 선정하였다. 또한 각 주택의 사랑대청을 선정한 이유는 사랑채가 조선시대 선비의 품위를 표현한 공간이라는 점과 사랑대청의 보존상태가 다른 공간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다는 이유에서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사례조사연구로서 현존하는 조선시대 상류주택을 현장답사하여 사랑대청의 각 입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실측, 도면화하여 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현장답사는 1차답사(1998년 7월 24일~1998년 7월 30일)와 2차답사(1999년 1월 17일~1999년 1월 22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1차 답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2차 답사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사랑대청 실내의 입면을 대청에 올라서서 보았을 때 출입문이 있는 쪽의 입면을 전면, 그 반대쪽의 입면을 후면, 그리고 전면을 보고 섰을 때 왼쪽을 좌측입면, 오른쪽을 우측입면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입면의 명칭은 각 주택 사랑대청의 가운데에서 본 입면을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다. 조사결과 연경당, 선교장, 양진당, 운조루, 추사고택의 사랑대청의 입면은 남쪽이었으나 충효당은 서쪽 입면이었다. 따라서 충효당을 제외한 다섯주택의 경우 출입문과 반대되는 쪽의 입면은 북쪽입면, 좌측입면은 동쪽입면, 우측입면은 서쪽입면이 된다. 그리고 각 입면은 바닥에서 상인방까지의 요소들인 기둥, 창호, 인방(상인방, 하인방, 중인방)을 실측하였으며, 창방과 장여, 소로가 있는 주택에서는 이들도 포함시켜 실측하였다. 실내입면이라 하면 천장까지의 모든 부분을 의미하나 전통주택에서의 천장부분은 독특한 구조방식으로 구성되어있기도 하거니와 그 높이가

높아 이를 일일이 실측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입면은 바닥부터 상인방까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입면구성요소들의 실측방법은 우선 각 요소들이 수평과 수직을 이루고 있으므로 수평적인 선은 가로로, 수직적인 선은 세로로 구분하여 실측하였고 가로, 세로가 식별가능하게 차이가 있었던 부분의 요소들은 최소치와 최대치를 각각 실측하였다. 또한 입면구성요소의 특성을 규모와 비례, 형태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각 요소들의 규모는 개수와 크기로서 파악하였고, 비례는 각 요소들의 실측치인 가로:세로의 비로 추출하였으며, 형태는 이들 요소들이 모여서 구성된 입면형태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 연구의 제한점

입면 구성에 관한 연구는 현존하는 조선시대 상류주택 사랑대청의 입면 모두를 조사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섯주택 사랑대청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입면구성요소별 치수를 실측함에 있어서 약간의 실측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III. 연구의 결과

1. 연구대상주택 사랑대청의 규모 및 위치

1) 규모

연구대상주택 사랑대청의 규모를 살펴보면, 추사고택이 1間, 2660×3000mm(7.98㎡, 2.42평)으로 가장 작았고, 연경당이 2間, 4870×3475mm(16.92㎡, 5.13평), 운조루가 2間 3900×4900mm(19.11㎡, 5.79평), 충효당이 4間, 4680×5000mm(23.40㎡, 7.09평), 선교장이 4間, 5130×5010mm(25.70㎡, 7.79평), 그리고 양진당이 6間 7840×4700mm(36.85㎡, 11.17평)으로 가장 컸다. 따라서 이들 사랑대청 실의 규모는 최소 7.98㎡~최대36.85㎡(2.42평~11.17평), 평균 21.66㎡(6.56평)으로 이로써 조선시대 상류주택 사랑대청 규모의 범주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각 주택의 1間に 따른 크기를 비교해 보면, 충효당이 5.85㎡(1.78평)으로 가장 작았고, 양진당 6.14㎡(1.86평), 선교장 6.43㎡(1.95평), 추사고택 7.98㎡(2.42평), 연경당 8.46㎡(2.56평), 그리고 운조루가 9.56㎡(2.9평)으로 다른 주택의 1間 크기에 비해 큰 면적을 나타내었다. 이는 운조루가 위치한 지역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당시, 규모에 대한 규제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그 허용정도가 용이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2) 위치

연구대상 주택에서 사랑대청의 위치를 살펴보면, 연경당은 사랑방과 누마루 사이에 사랑대청이 위치해 있고, 추사고택은 큰사랑방과 작은 사랑방 사이에 사랑대청이 위치해 있다. 선교장은 우측에 사랑방 2개가 인접해 있고 나머지 3면은 외부에 인접한 구성을 하고 있었다. 또한 충효당은 사랑방이 좌, 우측으로 인접해 있는 구성이었고, 양진당은 좌측에 사랑방이 위치하고 나머지 3면은 외부에 인접한 구성이었으며, 운조루는 사랑방과 누마루 사이에 사랑대청이 위치한 공간구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2. 전·후면의 구성요소와 특성

1) 전면

(1) 구성요소

전면은 사랑대청의 출입문이 있는 입면으로 대상 주택 모두에서 공통적인 입면구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즉 기둥, 상인방, 하인방, 창호가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단지 충효당의 경우에서만 이외에 창방과 장여, 소로가 더 사용됨으로써 다른 주택의 입면에 비해 보다 장식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2) 구성요소의 특성

연구대상주택 사랑대청에 사용된 기둥²⁾을 보면, 연경당 선교장, 추사고택에는 모진기둥³⁾이 사용되었고, 충효당, 양진당, 운조루에서는 두리기둥⁴⁾이 사용되었다. 이로써 서울지역에 가까운 주택일수록 모진기둥이 쓰이고 지방의 주택일수록 두리기둥이 사용되어 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둥이 입면에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면, 間の 가운데에 위치하는 기둥으로서 기둥굵기(가로길이) 전체가 나타나는 경우와 인접한 공간과 공유하는 기둥으로서 기둥굵기 전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두가지로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기둥굵기 전체가 나타난 기둥의 크기를 주택별로 살펴보면, 추사고택은 1間이므로 기둥굵기 전체가 나타난 기둥이 없었고 연경당, 선교장, 충효당, 양진당, 운조루의 기둥굵기는 <표 1>과 같으며 최소 200mm~최대 325mm, 평균 271mm이었다. 한편 기둥높이(세로길이)는 상인방까지의 길이로 최소 2340mm~최대 2685mm, 평균 2553mm였다. 이러한 크기를 기둥굵기에 대한 기둥높이의 비로 살펴보면, 연경당이 1:12.5, 충효당이 1:8.2, 평균은 1:9.78로 연경당이 기둥굵기에 비해 가장 높아 가늘고 섬세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고, 충효당이 가장 낮아 굵고 강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창호의 종류와 규모를 살펴보면, 연경당의 경우 띠살문 8개, 그 위에 교창 2개가 있었고, 추사고택은 띠살문 4개, 선교장은 용자문 4개, 띠살문 4개, 충효당은 띠살문 8개, 양진당은 띠살문 12개, 운조루는 띠살문 6개, 그 위에 교창 2개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에서 보면, 전면은 선교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띠살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문은 구조적으로 들어열개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사랑대청의 개방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대부

2) 연구대상주택 사랑대청에 사용된 기둥의 형태는 각 입면별로 같으므로 남쪽입면에서만 언급한다.

3) 모진기둥은 모기둥이라고도 하며, 방주(方柱), 각주(角柱), 둥근나무를 네모지도록 다듬어 만든 기둥을 말한다. 보통 모서리에 모죽임을하여 장식하였고, 조선시대의 살림집에서 흔하게 사용되었다(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P.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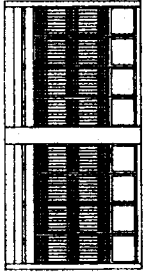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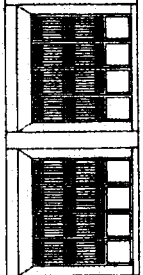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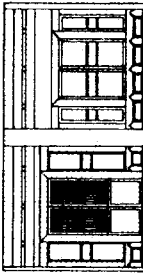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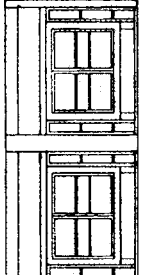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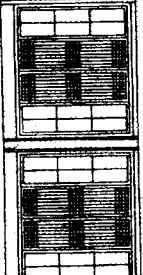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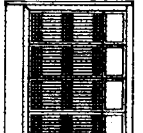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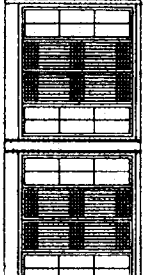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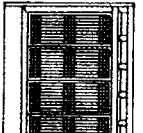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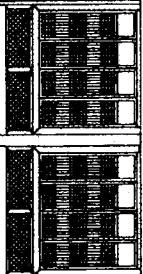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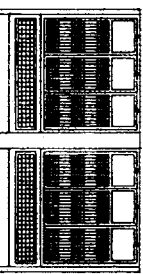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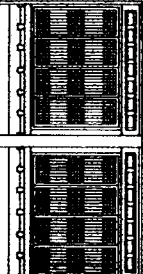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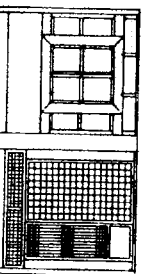
4) 두리기둥은 둥구리기둥, 원주(圓柱)라고도 하며, 기둥을 둥글게 다듬어 마련한 기둥이다(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P.283)

5) 신영훈(1993),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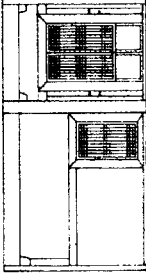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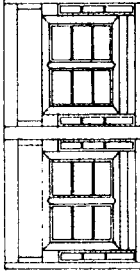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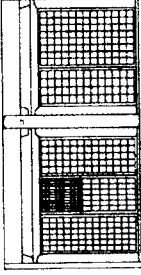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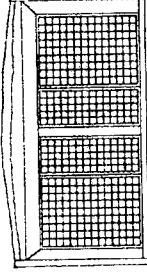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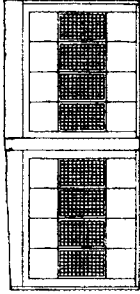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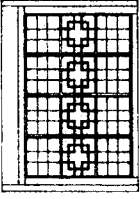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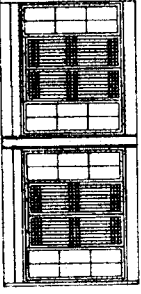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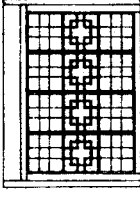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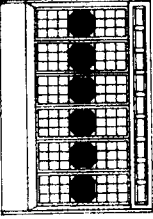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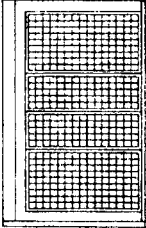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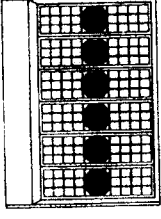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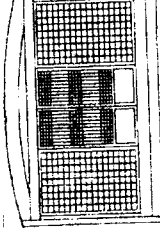
〈표 1〉 각 입면별 구성요소와 규모

주대 요소		연경당		추사고객		신교장		중효당		양진당		운조루	
기둥	기둥	50×2500	200×2500	100×2200	100×2200	220×2340	70×2340	70×2670	130×2570	100×2685			
	상인방	190×2285	190×2285	300×2400	300×2400	190×2390	190×2390	185×2275	240×2310	195×2200			
향	향	65×2285	65×2285	60×2400	60×2400	200×2390	200×2390	55×2275	60×2310	40×2200			
	향	65×2285	65×2285	60×2400	60×2400	200×2390	200×2390	65×2235	60×2330	40×2120			
창호	창호	533×1560	533×1560	600×1440	600×1440	598×1755	598×1755	530×1750	770×1215	교장			
	창호	300×2285	300×2285	300×2285	300×2285	155×2245	155×2245	교장	320×2200	머름			
기타	기타	205×2285	205×2285	180×2285	180×2285	장여	장여	교장	머름	머름			
	기타	180×2285	180×2285	180×2245	180×2245	장여	장여	교장	머름	머름			
기둥	기둥	60×2500	60×2500	100×2200	100×2200	55×2430	55×2430	90×2670	110×2570	100×2670			
	상인방	430×3295	430×3295	270×2800	270×2800	210×2430	210×2430	210×2670	270×2240	110×2570			
향	향	75×3295	75×3295	100×2800	100×2800	60×2340	60×2340	60×1660	120×2130	205×3730			
	향	75×3295	75×3295	100×2800	100×2800	60×2340	60×2340	60×1660	120×2130	205×3730			
창호	창호	529×1850	529×1850	640×1730	640×1730	520×1920	520×1920	500×1790	675×1975	장자문			
	창호	529×1850	529×1850	640×1730	640×1730	520×1920	520×1920	500×1790	675×1975	장자문			
기타	기타	머름	머름	머름	머름	머름	머름	머름	머름	머름			
	기타	머름	머름	머름	머름	머름	머름	머름	머름	머름			

M: 최대치 m: 최소치

			
<p>궤역궤</p>		<p>궤역궤</p>	
	<p>궤역궤</p> 		<p>궤역궤</p> 
<p>궤역궤</p>	<p>궤역궤</p>	<p>궤역궤</p>	<p>궤역궤</p>
			
<p>궤역궤</p>	<p>궤역궤</p>	<p>궤역궤</p>	<p>궤역궤</p>
<p>궤역궤</p>	<p>궤역궤</p>	<p>궤역궤</p>	<p>궤역궤</p>

〈그림 1〉 전면과 후면의 구성

			
높이 낮음	높이 낮음	높이 낮음	높이 낮음
			
진리 높음	추시 높음	진리 높음	추시 높음
			
높이 높음	아름답	높이 높음	아름답
좌 입		우 입	

〈그림 2〉 좌측입면과 우측입면의 구성

분의 주택에 사용된 문은 기둥과 기둥사이에 4개씩 짝수로 배치되어 총 8개가 있었으나 운조루의 경우 3개씩 배치되어 예외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기둥 양쪽으로 총 6개가 배치됨으로써 전면에 사용된 창호는 치수가 거의 동일하며 짝수로 조절한다⁶⁾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또한 연경당, 운조루의 경우는 띠살문 위에 교창이 위치함으로써 다른 주택에 비해 장식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띠살문의 경우 선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판이 있었는데 연경당이 가장 작고 양진당이 가장 컸다.

창호의 크기를 살펴보면, 가로길이는 최소 495mm~최대 685mm, 평균 575mm였고, 세로길이는 최소 1685mm~최대 2025mm, 평균 1864.2mm로 창호길이의 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창호의 가로길이의 경우 간의 너비가 얼마인지, 그 안에 문이 몇 개 위치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세로길이는 교창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띠살문이 입면에 나타난 형태를 살펴보면, 청판이 있는 대부분 주택의 경우, 띠살문의 살을 청판이 분할하여 수직적인 이미지를 감소시키는 반면, 청판이 없이 띠살로만 구성되었던 선교장의 경우는 수직적인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었다.

상인방을 살펴보면, 개수는 추사고택은 1개, 연경당, 선교장, 충효당, 운조루는 2개, 양진당은 3개이다. 굵기(세로길이)는 연경당이 150mm로 가장 작았고, 추사고택이 300mm로 가장 컸으며, 길이(가로길이)의 경우 운조루가 2055mm로 가장 짧았고, 추사고택이 2475mm로 가장 길었다. 즉 추사고택 상인방의 굵기와 길이가 가장 컸는데 이는 1間이라는 규모에 비해본다면 상대적으로 더욱 큰 규모라 할 수 있다. 하인방의 개수와 길이는 상인방과 같았으며 굵기는 운조루가 50mm로 가장 작았고, 양진당이 120mm로 가장 컸다. 하인방의 굵기를 상인방의 굵기와 비교해보면 양진당, 운조루는 상인방과 하인방이 같았고 그 외의 주택들은 상인방의 굵기가 최소 약 2배에서 최

대 2.7배까지 큼으로써 그 편차가 많았다. 또한 하인방의 굵기에 대한 길이의 비를 살펴보면, 상인방의 경우 평균 1:17.8이었고, 하인방의 경우 평균 1:28.8로 하인방의 기둥굵기가 상인방 보다 가늘었다.

또한 입면구성요소들의 특성을 토대로 전면의 전체적 이미지를 살펴보면, 기둥을 중심으로 모두 대칭적인 구성을 함으로써 안정되고 차분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다. 한편 대부분 띠살문이 중심이 됨으로써 섬세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 선교장의 경우에는 용자문이 병용됨으로써 섬세한 이미지는 줄어드는 대신 보다 다양함을 느낄 수 있었다. 연경당과 운조루에는 띠살문 위에 교창이 설치됨으로써 장식적인 이미지를 부가시키고 있었고, 충효당에는 창방, 장여가 설치됨으로써 역시 장식적인 이미지가 부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양진당의 경우 띠살문 주위에 문열굴⁷⁾이 굵게 설치되어 굵은 기둥을 더 굵게 보이게 함으로써 다른 주택에 비해 강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다.

2) 후면

(1) 구성요소

후면은 공간구성상 모두 외부에 접하고 있었고 이러한 많은 부분이 창호로 구성되고 있었다. 이들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기둥, 상인방, 하인방, 창호가 나타났고, 선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5주택에서 머름이 나타났다. 이는 후면이 주출입문의 반대쪽에 위치한 입면이므로 출입보다는 머름을 대칭의 뒷벽에 설치함으로써 방한과 방풍, 출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경당과 충효당의 경우 창방과 장여가 추가로 나타나 입면에 장식적인 효과를 주고 있었다.

2) 구성요소의 특성

후면은 전면과 마주보는 입면이기 때문에, 각 구성요소들의 개수와 크기가 같은 경우가 많았다. 우

6) 장기인(1991), 목조, 보성문화사, p.67.

7) 문열굴은 기둥사이 창호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수장과 벽선의 짜임을 통틀어 말한다.

8) 신영훈(1996),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pp.291-292.

선 기둥의 크기를 살펴보면, 기둥굵기, 기둥높이의 경우는 전면과 거의 같았다.

창호는 전면에 비해 그 종류가 다양함으로써 입면 구성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창호의 종류를 살펴보면, 연경당 띠살문 8개, 추사고택 띠살문 4개, 선교장 용자문 4개, 띠살문 4개, 충효당 띠살문 2개, 골판문 2개, 양진당 골판문 6개, 운조루 교창1개, 띠살문 1개, 정자문 1개, 골판문 2개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에서 보면 양진당을 제외한 모든 사랑대청에 띠살문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다양한 종류의 창과 함께 구성되어 전면과는 다른 입면을 구성하고 있었다. 창호의 크기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크기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창호의 비를 살펴보면, 띠살문이 사용된 경우 가로:세로의 비가 커서 가늘고 섬세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음에 비해, 골판문이 사용된 경우 회벽과 머름이 동시에 설치됨으로써 가로:세로의 비가 작아져 굵고 강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인방을 살펴보면, 전면에서처럼 상인방, 하인방만이 사용되었고 중인방은 사용되지 않았다. 상인방과 하인방의 경우, 개수는 역시 전면에서와 같고 상인방의 굵기는 충효당이 185mm로 가장 작았고, 추사고택이 300mm로 가장 컸으며, 하인방은 운조루가 40mm로 가장 작았고, 선교장이 200mm로 가장 커 그 차이가 많았다. 또한 그 비를 보면, 상인방의 경우 평균 1:10.9였고, 하인방의 경우 평균 1:36.2로 하인방의 굵기가 상인방보다 가늘었다. 이를 전면과 비교해 보면, 상인방은 전면보다 굵었으며, 하인방은 가늘었다.

한편 후면과 전면에서 가장 구분되는 요소로서 머름을 들 수 있다. 머름의 규모는 <표 1>과 같으며 평균 322×2243.7mm였다. 머름의 굵기에 대한 길이의 비를 살펴보면, 양진당이 1:8.5, 충효당이 1:7.0, 평균 1:7.2로 양진당이 머름굵기에 비해 길이가 가장 길었고, 충효당이 가장 짧았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보면 머름 자체의 비례가 공간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오히려 머름을 이루는 머름동자, 머름청판의 형태나 개수가 공간의 이미지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즉 연경당, 추사고택, 충효당에서처럼 머름동자, 머름청판의 수가 많고 정

교할 때 장식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고, 양진당에서처럼 통머름의 경우는 다른주택에서 나타난 짜는 머름에 비해 덜 장식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또한 운조루의 경우 짜는 머름일지라도 머름대와 머름청판의 수가 작아 다른 주택에 비해 장식적이지 못했다.

또한 후면의 전체적 이미지를 살펴보면, 후면 모두 외부와 인접해 있지만 입면이 구성된 방식에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연경당, 추사고택, 선교장, 양진당은 기둥을 중심으로 나뉘어진 입면간에 구성요소들이 규칙적으로 반복됨으로써 대칭적인 구성을 하였고, 충효당과 운조루는 양측면이 다른 비대칭적인 구성을 하고 있었다. 또한 연경당, 추사고택은 대칭적이면서 띠살문이 입면 전체에 설치됨으로써 섬세한 이미지를 느끼게 하였고, 머름, 창방, 장여가 부가됨으로써 장식적인 이미지도 느낄 수 있었다. 충효당, 양진당, 운조루는 굵은 기둥과 골판문, 회벽이 설치되고 기둥을 중심으로 두 입면이 다른 구성을 하고 있어 강한 이미지를 느끼게 하였다. 선교장은 전면에서처럼 띠살문 옆에 용자문이 설치됨으로써 그 중간자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를 전면과 비교해 보면, 연경당, 추사고택은 전,후면 모두 섬세한 이미지를, 선교장은 모두 중간자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으나, 충효당, 양진당, 운조루는 전면에서는 섬세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음에 비해 후면에서는 강한 이미지를 나타내 이미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좌·우측 입면의 구성요소와 특성

1) 좌측입면

(1) 구성요소

좌측입면은 사랑대청과 인접한 공간이 주택별로 차이가 있음으로써 입면구성의 요소에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우선 연경당은 누마루와 인접해 있는 입면으로 기둥, 상인방, 하인방, 창호, 머름(머름대, 머름동자, 머름청판)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사랑대청의 높이가 누마루보다 낮기 때문에 높이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머름대를 사용하는 구성방식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추사고택, 선교장, 운조루는 사랑방에 인접

해 있는 입면으로 기둥, 문, 상인방, 하인방으로 구성되었다. 충효당은 사랑방과 인접해 있는 입면이긴 하나 매우 다른 구성을 하고 있었다. 즉 기둥, 회벽, 상인방, 중인방, 하인방, 창호로 구성됨으로써 회벽과 중인방이 추가되었고 구성상에서도 다른 점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사랑방과 대청사이에 있는 입면은 하인방에서 상인방까지 출입문이 존재함으로써 사랑방과 대청사이에 밀접한 연계성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충효당은 출입문을 작게 만듦으로써 그러한 연계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양진당은 외부에 직접 접하는 입면으로 기둥, 창호, 회벽, 상인방, 하인방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사랑대청의 좌측 입면은 접해있는 공간에 따라 입면이 다르게 구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입면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기둥, 상인방, 하인방, 창호를 기본 요소로 하고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추가로 구성됨으로써 주택별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2) 구성요소의 특성

좌측입면의 기둥은 간의 구성방법에 따라 1間과 2間일 경우 기둥굵기 전체가 나타난 기둥이 없게 되므로 4間 이상인 선교장, 충효당, 양진당에만 나타났으며 기둥굵기는 210mm와 220mm의 두 종류로 큰 차이가 없었다. 기둥굵기에 대한 기둥높이의 비를 살펴보면, 평균은 1:12로 좌측입면은 전,후 입면에 비해 기둥굵기가 가늘었다. 이는 좌, 우측 입면이 공간 구성상 다른 공간과 인접한 경우가 많고 전,후 입면은 외부와 인접하거나 출입문이 위치한 입면이기 때문에 기둥의 사용에 있어서도 좀 더 굵은 목재를 선택했을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창호를 살펴보면, 연경당 불발기문 6개, 추사고택 불발기문 4개, 선교장 불발기문 8개, 충효당 띠살문 3개, 양진당 골판문 4개, 운조루 정자문 4개가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서 보면 외부와 인접해 있는 양진당의 경우 골판문을 사용하였고 다른 공간과 인접해 있는 나머지 다섯 주택은 창호지로 된 창호가 사용되었다. 이들 창호를 포함한 입면을 보면, 상인방과 하인방 사이 입면전체에 창호가 설치된 경우(추사고택, 선교장, 운조루), 머름 위에 창호가 설치된 경우(연경당, 양진당), 하인방에서 중인방 사이에 회벽과

함께 창호가 설치된 경우(충효당)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방을 보면, 우선 선교장에는 일정하지 않은 부재로 된 상인방이 사용됨으로써 다른 주택과는 매우 달랐는데, 즉 전, 후, 우측 입면이 같고 좌측입면만 다르게 구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선교장에서 상인방은 전체 이미지에서 매우 강조되어 보이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상인방의 굵기는 운조루가 180mm로 가장 작았고, 연경당이 430mm로 가장 컸으며, 하인방의 굵기는 선교장, 충효당이 60mm로 가장 작았고, 양진당이 120mm로 가장 커 차이가 컸다. 인방의 굵기에 대한 길이의 비를 살펴보면, 상인방의 경우 평균 1:10.7이었고, 하인방의 경우 평균 1:39.1로 하인방은 상인방의 약 4배 정도 가늘었다.

또한 좌측입면의 전체적 이미지를 보면, 충효당의 경우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비대칭적인 구성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사랑대청의 경우는 같은 종류의 창호가 반복되는 대칭적인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충효당, 양진당의 경우 강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고, 연경당, 추사고택, 선교장, 운조루의 경우 섬세하거나 그 중간자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전, 후 입면에서처럼 비대칭적 구성이면서 굵은 기둥, 회벽, 중인방이 사용된 충효당과 대칭적 구성이지만 굵은 기둥, 회벽, 골판문 등이 사용된 양진당의 입면에서는 강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고, 나머지 사랑대청에서는 완자문, 정자문 등이 사용되어 이보다는 약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다.

2) 우측입면

(1) 구성요소

우측입면은 연경당, 추사고택, 충효당, 양진당은 사랑방과, 선교장은 외부와, 운조루는 누마루와 인접해서 입면이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기둥, 상인방, 하인방, 창호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운조루의 경우 사랑대청과 인접해 있는 누마루와의 높이차이로 인해 하인방 위에 추가의 부재가 사용되고 있었다.

(2) 구성요소의 특성

우측입면은 좌측입면과 마주보는 입면으로 기둥,

창호, 인방 등 구성요소의 규모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기둥의 크기를 좌측입면과 비교해 보면, 기둥굵기의 경우 선교장은 우측입면의 기둥굵기가 10mm가 컸고, 충효당은 같았다. 이러한 크기에서 보면, 좌,우측 입면의 기둥굵기가 전,후 입면의 기둥굵기에 비해 비교적 가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충효당, 양진당의 경우 기둥 옆에 문얼굴이 굵게 위치함으로서 기둥을 더 굵게 보이게 하여 강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즉, 선교장 기둥의 굵기가 더 굵음에도 불구하고 충효당의 경우 기둥의 굵기를 강조하게 되어 선교장 보다 강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창호를 살펴보면, 연경당 불발기문 6개, 추사고택 불발기문 4개, 선교장 용자문 4개, 띠살문 4개, 충효당 정자문 5개, 띠살문 1개, 양진당 정자문 4개, 운조루 정자문 2개, 띠살문 2개 가 존재하고 있었다. 우측입면 역시 좌측입면과 마찬가지로 인접해 있는 공간에 따라 두가지 형태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선교장의 경우 외부와 인접해 있었고, 나머지 주택은 사랑방에 인접해 있거나(연경당, 추사택, 충효당, 양진당), 누마루(운조루)에 인접해 있었다. 여기서 선교장은 양진당의 좌측입면과 같이 외부에 접해 있으나 양진당에 골판문이 사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띠살문과 용자문이 사용되었고 따라서 선교장에는 4입면 모두 거의 비슷한 입면을 구성함으로써 다른 주택과는 차별화된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창호를 보면, 상인방과 하인방 사이 입면전체에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인방은 상인방과 하인방의 경우 좌측입면과 같은 개수를 나타내었고 굵기를 좌측입면과 비교해 보면, 연경당, 추사고택은 같은 크기를 나타내었으나 선교장, 충효당, 운조루는 좌측입면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하인방의 경우 우측입면이 큰 경우(연경당, 선교장, 운조루)와 좌측입면이 큰 경우(충효당), 같은 경우(추사고택, 양진당)로 파악해 볼 수 있었는데 이로써 인방의 크기는 주택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운조루와 양진당의 경우 상인방에 휘어진 부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운조루의 경우가 양진당의 경우보다 굵어 보다 힘이 있어 보였다. 특히 양진당의 경우는 상인방이 문얼굴에서 약

간 떨어져 있어 그 힘을 느낄 수 없었는데 대신 문얼굴의 두께가 두꺼워 이를 대신하고 있었다. 인방의 굵기에 대한 길이의 비를 살펴보면, 상인방의 경우 평균 1:15.5였고 하인방의 경우 평균 1:30.2로 하인방은 상인방의 굵기보다 약 2배 정도 가늘었고, 이를 좌측입면과 비교해 보면, 상인방은 좌측입면보다 가늘었고, 하인방은 굵었다.

또한 우측입면의 전체적 이미지를 보면, 여섯주택 모두 대칭적인 구성을 하고 있었다. 다만 충효당의 경우 기둥 원편에서 가운데 정자문의 윗부분이 띠살문으로 구성됨으로써 약간의 비대칭적 구성이긴 했으나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들 모두에게서는 강하지도 섬세하지도 않은 중간자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이는 완자문, 정자문 등의 사용이나 띠살문과 용자문이 동시에 사용됨으로써 느껴질 수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조선시대 상류주택 사랑대청의 입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실측하여 이들의 규모와 비례, 형태적 특성을 찾아 각 입면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들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면은 출입문이 위치한 입면으로, 기둥, 상인방, 하인방, 창호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었고, 충효당에는 이밖에 창방과 장여가 나타났다. 입면은 모두 대칭적인 구성을 하고 있었고, 선교장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는 섬세한 이미지를, 선교장은 중간자적인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다.

둘째, 후면은 외부와 인접한 입면으로, 기둥, 상인방, 하인방, 창호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었고, 머름이 대부분 사용되었다. 입면은 연경당, 추사고택, 선교장, 양진당의 경우 대칭적인 구성을, 충효당과 운조루는 비대칭적인 구성을 하고 있었다. 또한 연경당, 추사고택은 섬세한 이미지를, 선교장은 중간자적인 이미지를, 충효당, 양진당, 운조루는 강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다.

셋째, 좌측입면은 인접한 공간이 다양하게 나타난 입면으로, 기둥, 상인방, 하인방, 창호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었고, 충효당의 경우 중인방이, 연경당은 머림이 추가로 사용되었다. 입면은 충효당을 제외한 주택에서는 대칭적인 구성을 하고 있었으며 충효당, 양진당은 강한 이미지를, 나머지 주택에서는 중간자적인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다.

넷째, 우측입면 역시 인접한 공간이 다양하게 나타난 입면으로, 기둥, 상인방, 하인방, 창호만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입면은 충효당을 제외한 주택에서는 대칭적인 구성을, 충효당은 비대칭적인 입면을 구성하고 있어 좌측입면과 그 구성이 같았다. 또한 모든 주택에서 중간자적인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별 입면구성의 특성을 보면, 연경당, 추사고택, 선교장의 경우 사랑대칭의 인접공간이 외부인지, 내부인지에 따라 그 입면구성에 차이를 나타내었고, 충효당, 양진당, 운조루의 경우 인접공간의 내,외부가 각 주택의 입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준이 되지 못하였다. 특히 충효당과 운조루는 4입면 모두 다른 입면을 구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입면의 구성은 각 주택별로 일정한 기준이 없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각 입면별 구성의 특성을 보면, 전면은 모두 비슷한 구성을 하고 있었으나, 후면, 좌측입면, 우측입면은 인접공간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양한 구성을 하고 있었다.

셋째, 입면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소로 기둥, 인방, 창호를 들 수 있다. 기둥과 인방은 굵기가 가늘 때 섬세한 이미지를, 굵을 때는 강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창호는 그 자체의 크기나 비례보다는 종류가 공간의 이미지에 더 큰 영향을 주었는데, 띠살문은 섬세한 이미지를, 용자문, 완자문, 정자문은 중간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이밖에 회벽, 문얼굴의 사용 등은 강한 이미지를 부가시키는 요소였다.

향후 진행되어야 할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면,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상류주택 사랑대칭을 단지 6주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표집을 다양하게 하고, 한 주택내에서도 사랑대칭 뿐 아니라

여러공간의 입면구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 강민주(1994), 주거공간계획에서 전통성 적용에 관한 분석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종만 외 1인(1988), 한국전통건축의 개구부 비례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권5호, 71-89.
- 박영순 외(1998),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 신영훈(1993), 한국의 살림집 상,하, 열화당.
- 신영훈, 김동현(1971), 한국고건축의장, 공간사.
- 오혜경(1995), 아파트 내부에 나타난 한국 전통실내공간의 특성 및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11권, 71-81.
- 오혜경, 홍이경(1999), 전통주택 사랑대칭의 우물마루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0호.
- 장기인(1991), 목조, 보성문화사.
- 장숙화, 김일진(1992), 한국전통건축의 비례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 5호, 89-102.
- 정인국(1991), 한국건축양식론, 일지사.
- 주남철(1965), 이조 주택의 창과 문에 나타난 공간성, 고고미술 임천선생회고 특집.
- 주남철(1972), 한국창호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9호.
- 주남철(1987),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 주남철(1998), 한국주택양식론, 일지사.
- 천병옥(1961), 이조시대주택의 장식적 의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상헌(1992), 조선상류주택 내부공간과 인체치수와 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Kang, Soon-Joo, Kim, Dae-Nyun, Oh, Hye-Kyung, Park, Young-Soon, Chun, Jin-Hee, Choi, Jae-Soon, Hong, Hyung-Ock(1999), Hanoak-Traditional Korean Homes-, hollym.